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1.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대표적 관점

- 시간적 관점
- 공간적 관점
- 사회적 관점
- 윤리적 관점

‘우리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에 책임이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윤리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이 다른 관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가) 입니다.

- ① 자연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것
- ② 행위의 선악과 인간다운 삶을 탐구하는 것
- ③ 사회의 변천 과정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
- ④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미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
- ⑤ 지구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것

2. 서양 사상가 갑이 <사례> 속 K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할 때, 그가 제시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내가 주장하는 공리(功利)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입니다.

<사 례>

K는 홍수로 고통을 겪는 이웃의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은 돈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다. 그의 성금은 이재민들이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① 경제적 이익보다 자신의 명예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 ② 결과적으로 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 ③ 이웃을 도우라는 양심의 명령을 무조건 따랐기 때문이다.
- ④ 이웃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을 따랐기 때문이다.
- ⑤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하지 않고 선한 의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분배에 있어 정의란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는 것이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차지하는 경우 불평과 싸움이 생겨난다. 정의는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 ① 업적에 따라 몫을 분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재화는 구성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④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적 소유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재화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한다.

4. 이상 사회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큰 도(道)가 행해지는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어진 사람과 유능한 사람이 관직에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노인과 병든 사람이 보살펴지며, 도둑이 없어 문을 열어 둔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 사는 시민은 남녀 모두 하루 6시간 노동하며, 모두가 공정하게 분배를 받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 시장(市長)은 투표로 선출되며 특별한 머리장식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시민과 같은 옷을 입는다.

- ① 갑: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 간다.
- ② 갑: 덕(德)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관직을 맡는다.
- ③ 을: 시민들의 생산 활동에서 평등이 실현된다.
- ④ 을: 관직이 세습(世襲)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된다.
- ⑤ 갑, 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배려된다.

5.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 세상의 모든 것은 생멸(生滅)하고 변화하며, '나'라고 하는 불변의 실체는 없다. 변하는 모든 것은 고통[苦]이다. 이를 깨달아야 해탈할 수 있다.

- ① 인간의 현실적 삶의 모습은 고통이다.
- ② 인간의 자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 ③ 진리를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 ⑤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

시.치.타.그.여.여

(윤리와 사상)

2

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道)는 언제나 억지로 하는 일이 없지만[無爲] 하지 않는 일도 없다. 통치자가 이 도를 지킨다면, 만물은 저절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이를 억지로 하려 한다면 나는 그것을 소박함으로 가라앉힐 것이다. 소박함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어서 고요해지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나)	통치자: 어떻게 해야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상가: _____ ㉠

- ① 백성을 형벌로써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 ② 백성을 인의(仁義)의 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 ③ 백성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④ 백성에게 예절과 법도(法度)를 가르쳐야 합니다.
- ⑤ 백성의 이로움을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적 명령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인데, 우리의 의지가 무조건 따라야 할 도덕적 원칙은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 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약속 장소로 나간다.
- ② 나중에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구에게 친절히 대한다.
- ③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청소를 한다.
- ④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동체의 규범을 충실하게 지킨다.
- ⑤ 자신이 호감을 갖는 사람만 돕겠다는 규칙을 정하고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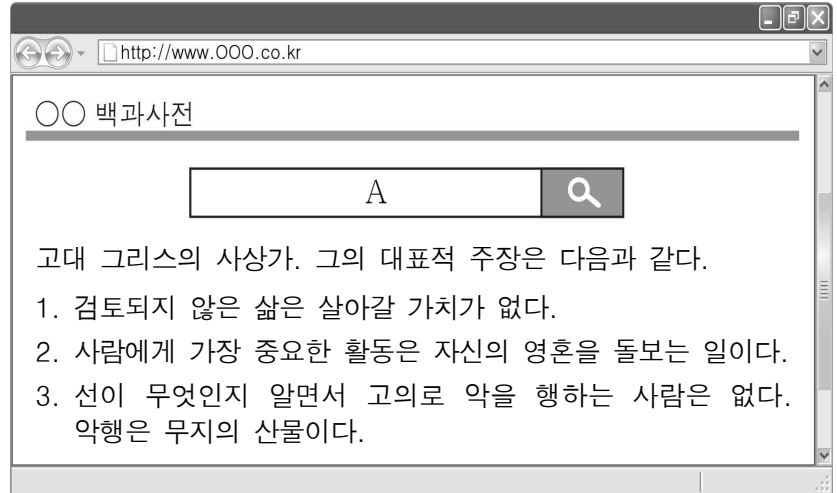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보통 사람과 성인의 본성[性]은 동일하다. 비록 기질(氣質)에 맑음과 흐림, 순수함과 잡박함의 차이가 있지만, 참되게 알고 실제로 행하여 본성을 회복한다면 선(善)이 다 갖추어진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 갖추어져 있다.	√	√		√	
인간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	√
성인이 되기 위해 도덕적 수양이 필요하다.			√	√	√
공부의 목표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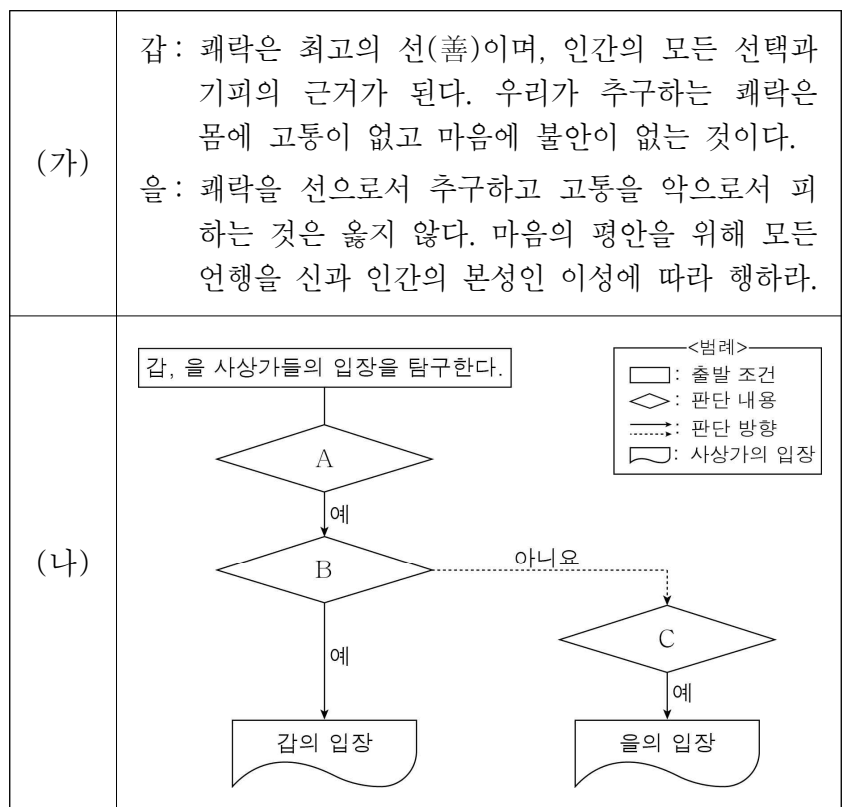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9. 그림은 어느 사상가를 검색한 인터넷 화면이다. A에 들어갈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참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②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
- ③ 정신적 가치보다 세속적 부와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 ④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선에 대한 지식 추구보다 실천 의지의 함양을 중시해야 한다.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최고선에 이르기 위해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하는가?
 ㄴ. A: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추구해야 하는가?
 ㄷ. B: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ㄹ. C: 이성에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행복은 무엇입니까?
 스승: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라네.
 제자: 그러면 덕은 무엇입니까?
 스승: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네.
 제자: 어떻게 해야 덕을 갖출 수 있습니까?
 스승: 교육을 받고 중용에 맞는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네.

- ①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여 살아가야 한다.
- ②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 선악을 판단해야 한다.
- ③ 진리를 탐구하고 옳은 행위를 반복하여 실천해야 한다.
- ④ 감정과 행위에 있어 모자람보다 지나침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1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각 문화는 서로 다른 환경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므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자기 집단의 문화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의복이나 언어, 관습 등의 차이가 증오의 계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보 기 >

ㄱ. 문화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ㄴ. 단일한 기준으로 모든 문화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ㄷ. 인간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도 허용해야 한다.
 ㄹ. 관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3.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민의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주권자는 그 자신에 의해서만 온전히 대표될 수 있으며, 다른 누구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그래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순간, 인민은 자유를 잃게 된다.
 을: 인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가 완전한 정부 형태이다.

- ① 인민은 대의원에 의해 대표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인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직접 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인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④ 인민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의제를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인민의 자유는 대의제를 통해서도 보장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4.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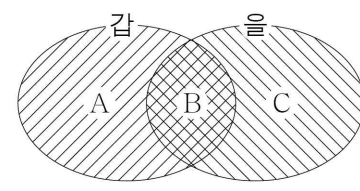
(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 각 개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 개인은 공동체에 우선하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 개인은 공동체적 삶에 헌신해야 한다. 개인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에서 태어났고, 그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 보 기 >

ㄱ. (가)는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적극 간섭해야 한다고 본다.
 ㄴ. (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를 토대로 형성된다고 본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무를 강조한다.
 ㄹ. (가)는 개인을 연고적 자아로, (나)는 독립된 자아로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5. (가)의 현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고 양도받았다면, 빈부 격차가 크더라도 그 소유 상태는 정의롭다. 을: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된다. 이 원칙은 기회균등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보 기 >

ㄱ. A: 개인의 소유권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ㄴ. B: 개인 간의 빈부 격차는 정의로운 사회에도 존재할 수 있다.
 ㄷ. C: 국가는 사적 소유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ㄹ. C: 국가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시치타그 여여

4

(윤리와 사상)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의 삶은 자아, 가족, 이웃, 사회, 국가 등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바깥에는 인류라는 동심원이 있다. 우리는 삶의 원천이 되는 가족, 이웃, 사회, 국가 등에 대한 특정한 애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전체를 동료 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 보 기 >
 ㄱ. 세계 시민으로서 인간 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가?
 ㄴ. 지역 공동체를 무시하고 인류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가?
 ㄷ.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을 받는가?
 ㄹ.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국가란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며 최고선을 지향한다.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국가란 만민에 대한 만민의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국가는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를 위해 절대 권력을 지녀야 한다.



- ① 갑: 국가는 개인들의 합의로 성립된 인위적 공동체이다.
 ② 갑: 국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공동체이다.
 ③ 을: 국가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④ 을: 국가는 통치자의 이익만을 위해 형성된 정치 공동체이다.
 ⑤ 갑, 을: 국가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도덕 공동체이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이유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통해,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지위도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 ① 분배 영역별로 고유한 분배의 기준과 절차가 존재한다.
 ②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모든 사회적 가치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⑤ 한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소유해야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폭력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있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유도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진정한 평화란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문화적 평화를 모두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ㄴ.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만이 폭력에 해당한다.
 ㄷ.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ㄹ.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구조적 폭력도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시장 경제는 완전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온다. 정부는 세금 부과, 이자율 조정, 유효 수요 창출 등으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을: 시장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정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한다면, 자원 활용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우리를 노예의 길로 빠지게 할 것이다.

◎ 학생 답안

갑은 ㉠실업과 같은 시장 경제가 야기한 문제점에 주목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을은 ㉢시장 경제가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점에 주목하였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갑, 을은 모두 ㉤생산의 효율성보다는 분배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